

월요논단



김영호 중앙대학교·한국박물관학회장

박물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

우리나라 뮤지엄 현장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서구와 다른 문화적 환경에서 생겨난 과도기적 특성이라 할까. 그 첫째가 박물관과 미술관을 명백히 구분 지으려는 전문가들의 태도다. 두번째로는 전제 뮤지엄 사업에서 고대와 근대 그리고 현대의 벽을 견고히 구축하려는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문명사적 전환기로 불리우는 작금의 현실에서 반성과 대안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이 법제에 의한 평가기 구조는 곧바로 뮤지엄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이원화시켜 놓았고, 뮤지엄 관련 단체와 조직들을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원인이 됐다. 정책보고서뿐만 아니라 대학과 현장의 연구논문에서 개념적 혼돈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0여 차례의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근본이 달라진 것은 없다. 국내외 지식사회는 관계와 통합의 세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다수의 뮤지엄 전문가들은 분리와 독점이라는 구태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전혀 딴 세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두 번째 고대와 근대 그리고 현대라는 시기 구분에 관한 집착에 대해 생각해 보자. 박물관=고대, 미술관=근현대라는 도식 아래 각각의 뮤지엄들은 소장품의 수집에서 연구, 전시, 교육 등의 사업에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박물관에서 현대미술전을 개최하는 일은 터부시되는 것이 현실이며, 미술관에서 고대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직도를 보면 '미술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고대에서 조선 후기까지 미술품을 다루는데 한정돼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세기 이후에서 오늘에 이르는 작품들을 관리하며 근대와 현대의 독점은 당연한 의무로 여긴다. 그 결과 대중들은 고대유물과 현대미술품이 융합된 유기적 역사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이러한 관례를 반성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뮤지엄들이 생겨나고 있다. 2019년 6월 서울역 근방에 새로 문을 연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이 하나의 사례다. 서소문역사공원 지하에 자리잡은 박물관은 이성으로 청년 세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으로 부상했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은 한국 최대의 가톨릭 순교성지에 자리잡은 성지박물관이다. 조선 후기 이후의 사상사를 정립하는 역사박물관이며, 특정 종교의 경계를 넘어 진리의 보편성을 모색하는 열린박물관으로 소개된다. 무엇보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계를 해체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체성을 세우고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공(空)'이라는 제명의 '현대불교미술전' (4.12-6.30)이 열리고 있다. 조선 중기에 제작된 '화엄사영산회괘불'(국보301호)과 13인의 현대미술가들이 제작한 현대미술품 30여점이 함께 전시돼 있다. 이 전시가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것은 박물관에서 열리는 현대미술전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고대 근대 현대의 시간을 초월해 유기적인 역사관을 가늠할 수 있는 전시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다.

열린마당

맛있는 미니 단호박은 소비자와의 약속



오상석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로 혹은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서 한끼 다이어트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외에 초당옥수수, 애플수박 역시 계절간식으로 맛으로, 크기로, 간편함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며 제주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니 단호박은 후속예에 의해 품질이 좌우된다. 작기 수확과 수확 후 큐어링으로 품질과 당도를 높여 더 맛있는 미니 단호박을 출하해야 한다. 큐어링은 수확시 발생한 과피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과정으로 병해 침입을 막아 미니 단호박의 저장성을 높인다. 또한 2주간 저장 과정에서 후숙이 진행돼 전분이 당으로 변화하면서 당도가 향상된다. 맛있는 미니단호박에서 나아가, 지역농산물과 가정간편식 시장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미니단호박이나 초당옥수수, 애플수박 등은 자체가 간식으로, 가정간편식으로 기능을 하여 인기로 뜨겁지만, 일반적인 우리 지역농산물을 어떻게 가정간편식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왜 서울서 잇따라 업무협약?

7월 대선행보 세확산 관측

○...7월 사퇴설이 나오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서울에서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

원 지사는 28일 오후 서울본부에서 국기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제주도-태권도진흥재단 업무협약에 이어 29일 오후 서울본부에서 도-KB 국민은행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

한 전직 공무원은 "지사직 사퇴를 앞두고 업무 마무리에 주력해야 할 원 지사가 최근 협약을 연이어 진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이 있을수 있다"며 "대선을 앞두고 든 행보로 인식할 우려도 있다"고 언급.

"과일껍질 음식물류 배출 안돼"

○...여름철을 맞아 피서객 및 야외 활동이 늘고, 과일소비 증가 등으로 분리 안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제주시가 올바른 배출방법 등 홍보에 주력.

어패류 껍데기 등은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지난해 기준 6~8월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분철 대비 18% 증가.

한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을 통해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환경저해 요인을 줄여 청정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

"같은 날 공연 소통 부족 아냐"

○...5개 제주도립예술단이 합동 공연을 펼치며 협업 기회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개별 공연 일정이 겹치면서 그 배경에 관심.

지난 26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에서는 내달 합동 공연 축하음악회를 취지로 제주교향악단 연주회가 열렸고 문예회관에선 도립무용단의 기획 공연이 진행.

이에 도립무용단 측은 "제주교향악단 음악회가 제주포럼 일정으로 날짜가 바뀌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예술단 간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다"라고 해명.

사설

보훈의 의미 강조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그 어느 달보다도 각별하게 와닿는다.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추모하는 현충일(6일)이 있다. 또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6·25전쟁일(25일)을 잊을 수 없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예우하는 호국보훈이 오히려 서럽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어 안타깝다. 참전 용사에 대한 보훈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훈청에 따르면 2021년 5월말 기준 제주도내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참전용사는 4306명이다. 참전 유공자의 혜택은 유공자 기준 1세대까지만 제공된다. 실제로 자녀가 없는 군인이 참전해 사망하는 경우 보훈 혜택은 부모가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그런데 참전용사 중 사망 군인의 경우 직계가족 외 제사를 맡고 있는 친척들에게도 혜택이 제공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쟁 중 사망해 부모가 제사를 지냈는데 부모도 돌아가자 친척이 제사를 맡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어서다. 현행법상 직계가족 외에 친척 등엔 보훈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아쉽다. 정부는 매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힌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예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단적으로 제주지역엔 보훈병원도 없다. 연료 한 참전 용사들이 치료에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보훈처가 지정해 사망하는 경우 보훈 혜택은 부모가 받는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국가의 당연한 책임인 보훈의 의미를 강조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프게 그치지 않는다.

청년농 급감·나홀로 귀농, 농업 '미래'없다

제주농업의 위기는 여러 원인으로 비롯되지만 어느 것 하나 해법을 마련 못하는 현실에 더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수입개방과 소비시장 변화로 인한 국산 농산물 추락, 반복되는 과잉생산·산지폐기,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귀농인 정착 한계, 행정과 농업의 능력격차 미진 등은 제주농업 위기의 해묵은 과제다. 적어도 제주농업이 미래를 내다보려면 청년농 급감과 귀농인 정착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귀농인의 70%가 '나홀로' 오서 비롯되지만 어느 것 하나 해법을 마련 못하는 현실에 더 심각성을 느껴야 한다. 수입개방과 소비시장 변화로 인한 국산 농산물 추락, 반복되는 과잉생산·산지폐기,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귀농인 정착 한계, 행정과 농업의 능력격차 미진 등은 제주농업 위기의 해묵은 과제다. 적어도 제주농업이 미래를 내다보려면 청년농 급감과 귀농인 정착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감소세는 제주농업의 암울한 '미래'를 시사한다. 지난 2015년 1118가구(전체 농가의 3.3%)였다가 매년 줄면서 2019년 809가구(2.6%)로 4년간 20% 이상 급감했다. 반면 65세 이상 비율은 2015년 40%에서 2019년 49%대로 전체 농가의 절반에 이른 상태다. 국가 인구변화 추이에 따른 결과이긴 하지만 청년농 대책은 더욱 절실해졌다.

청년농 감소와 불안정한 귀농현상은 안정적 소득 불투명, 농지와 주택확보 어려움, 농업 '희망'을 견인할 행정·농협의 대응 부족 등을 주 원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오랜 과제에도 해결은 요원하다. 제주농업이 살아야 지역의 미래도 말할 수 있다. 농업의 미래는 새 주역이 될 청년농과 귀농인들에게 확실한 '길'을 열어줄 때 가능하다. 그 해법은 타 지자체를 앞서서 획기적인 제도과 정책 발굴에 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원규(향년 10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6월 28일
아들 김수성
수현 며느리 문영자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향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중-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소방서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

상속한정승인공고
성명 : 방 허봉원 (1955년 04월 10일 생)
최후주소 : 서귀포시 서호상로 10-5(서호동)
상기자는 2021년 3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1년 6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1노단10142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관한 제1022호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관자와 수증자는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바라며, 아울러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8-21, 210호 (중문동, 탐스빌)
2021년 6월 28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허준석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